

KIA, 오늘만 같아라



“5선발은 내 차지”

KIA 좌완 임준섭이 20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와의 시범경기에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선발로 나온 임준섭은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KIA 타이거즈)



윤석민, 출발은 트리플 A서

탬파베이와 시범경기 2이닝 1실점

두 번째 출격을 끝내 윤석민(불티모어 오리올스)이 마이너리그로 자리를 옮긴다. 빅리그 출발은 무산됐지만 희망은 남겨두었다.

윤석민이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2이닝 1피안타(1홈런) 1실점을 기록했다. 홈런을 내주기는 했지만 변화구가 돌보였다.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이었던 이날, 윤석민은 2-6으로 뒤진 5회 등판해 선두타자 로건 포시테를 유격수 땅볼로 잡은 뒤 중견수 플라이로 투어웃을 만들었다. 하지만 1S-3B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던진 145km/h구가 가운데로 물리면서 제이슨 닉스에게 첫 피홈런을 내줬다.

6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윤석민은 공격적인 피칭을 이어갔다. 우익수 플라이와 유격수 땅볼로 민트 투어웃.

윌슨 베네미트와의 승부는 백미였다. 2B-2S에서 뿐만 체인지업에 윌슨 베네미트가 중심을 잊고 넘어지면서 혼스윙 삼진이 됐다.

특유의 슬라이더는 물론 변화무쌍한 체인지업까지 변화구가 위력적이었다. 하지만 직구 최고 구속이 시속 145km/h에 머무는 등 스피드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늦어졌던 계약과 취업비자 절차 등으로 인한 훈련량이 부족했던 윤석민은 결국 경기가 끝난 뒤 마이너리그행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쇼월터 감독은 “적절한 시점에 윤석민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며 기회를 열어두었다. /김여울기자 wool@

고교야구 주말리그 내일 개막

고교야구 열전이 22일 시작된다.

을 시즌 고교야구 주말리그는 서울디자인고(서울), 울곡고(경기), 경주고(경북) 팀의 청단으로 기준 8개 권역이 10개권역으로 세분화됐다. 전라권에는 광주일고·광주동성고·진흥고·순천효천고·정읍인상고 등 6개 팀이 포함됐다.

전라권 1라리운드 경기는 군산원명구장에서 22·23일 열린다. 22일 오전 9시30분 인상고와 효천고가 첫 대결을 갖게 되며 진흥고-동성고(오후 12시), 화순고-광주일고(오후 2시30분)의 경기가 이어진다. 23일에는 화순고와 인상고가 오전 9시30분에 경기를 치른다. 광주일고와 효천고는 오후 12시, 군상고와 진흥고는 오후 2시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발 임준섭, 6이닝 무사사구 무실점 호투

김주형 2타점 공·수 맹활약 롯데에 3-1 승



시범경기

생각하는 야구, 생각대로 됐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전날 9이닝 11실점의 ‘911 악몽’을 잊어 한 깔끔한 승리였다.

부진했던 임준섭의 호투와 잘나가는 김주형의 공·수의 맹활약이 눈에 띈 경기였다. 두 선수의 활약에는 ‘생각하는 야구’가 있었다.

임준섭은 을 시즌 우승후보로 꼽히는 롯데 타선을 6이닝3피안타 무실점으로 제압했다. 불넷도 내주지 않은 깔끔한 피칭이었다.

스프링캠프와 앞선 등판에서의 부진으로 5선발이 아니라 엔트리 걱정까지 했던 터라 임준섭의 호투는 더욱 빛났다.

‘밸런스 고민’ 끝에 답을 찾은 호투였다.

임준섭은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생각을 많이 했다. 스템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보폭을 줄였다. 밸런스가 좋아서 경기가 쉽게 풀렸다. 그동안 못 던져서 선발 욕심이 아니라 엔트리 걱정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부진 탈출을 위한 ‘생각하는 야구’가 통했다. 베테랑 김상훈의 노련함도 한몫 했다.

김상훈은 “투심을 처음 썼는데 상대가 덤비는 타이밍에 잘 사용했다. 이후에는 커브로 승부를 했다”고 언급했다.

김주형은 “타석에서 타이밍을 많이 생각하면서 승부를 하고 있다. 수비를 할 때는 다음 플레이를 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준비를 했다.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김주형은 “타석에서 타이밍을 많이 생각하면서 승부를 하고 있다. 수비를 할 때는 다음 플레이를 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력한 부분이 결과로 나오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고 말했다.

생각하는 야구가 위기에 빠진 KIA의 분위기를 바꿨다. /김여울기자 wool@

KIA 개막전 입장권 24일 예매

KIA 홈개막전(4월1일·NC전) 입장권 예매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시작된다. 4월2일 경기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예매할 수 있다.

예매는 인터넷 티켓링크(<http://sports.ticketlink.co.kr>), 티몬(www.ticketmonster.co.kr) 사이트나 전화(1588-7890)를 이용하면 된다. KIA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와 LG 유플러스 티켓플레이팅은 물론 편의점 CU, GS25내의 ATM, 헤네트 ATM에서도 예매할 수 있다.

KIA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전거 이용자는 정문에서 할인권을 교부받으면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한페이카드 결제시 100원을 할인 받는다. 타지역에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찾는 관광객이 코레일 열차 티켓(승차일 전후 7일까지 유효)을 제시하면 1000원을 할인해준다.

카드사 제휴 할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대카드는 현장 구매시 50% 할인(데이블석·특별석 제외), 롯데카드와 GS&POINT카드는 각각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광주·삼성·신한카드는 각각 일반석 1000원 할인이 제공된다. 카드사 중복할인은 불가능하고, 카드 사용시 1인 1매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즌 중 홈경기 예매는 해당 경기 1주일 전 오전 11시부터 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대입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시가거리)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완도해조류박람회 & 청산도·보길도 1박 2일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7:00	옹산역/서대전역/천안아산역/의성역출발
	09:3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2일차	14:00	보길도 도착 후 관광
	19:20	완도로 이동 후 숙소배정
3일차	09:20	청산도 도착 후 자유관광
	13:00	코스1 무위사 극락전, 철출산 녹지밭 코스2 완도해조류박람회(04.11~05.11)
4일차	23:00	완도 출발 후 광주 도착 의성역/서대전역/천안아산역/옹산역도착
	성인 151,000원~	

O-train으로 떠나는 힐링투어 1박 2일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7:40	광주 집결 후 출발
	11:00	영월 후 트레킹(서강길, 봉길)
2일차	14:30	신월 도착 후 관광(벽 29, 흘영지)
	16:30	태백역 도착 후 O-train 탐방
3일차	19:00	영주역 도착 후 숙소배정
	08:00	영주부사사, 소수사원, 안동하회마을
4일차	19:00	광주도착 후 해산
	성인 190,000원~	

보물섬 남해 기차여행 당일

날짜	시간	일정
06:10	광주역/광주송정역 출발	
09:06	순천역 도착 후 남해 이동	
11:00	독일마을/원예예술촌/ 금산보리밭/한국의 아름다운길	
20:19	광주송정역/광주역 도착	
성인 57,000원~		

KTX와 ITX라고 떠나는 남이섬 자유여행 당일, 매일출발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7:35~10:30	광주역 출발/옹산역 도착
	11:00~11:55	옹산역 출발/기생역 도착
2일차	12:30~18:30	남이섬 도착 후 자유관광
	19:28~20:23	기생역 출발/옹산역 도착
3일차	20:40~23:56	옹산역 출발/광주역 도착
	성인 75,000원~	

KTX타고 떠나는 임진각 제3땅굴 DMZ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7:35	광주역 집결 후 출발
	10:27~11:10	옹산역 도착 후 출발/임진각 도착
2일차	11:40	임진각맹회 누리,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산역 관광
	19:30	옹산전차장 기이용
3일차	20:40~23:56	옹산역 출발/광주역 도착
	성인 85,000원~	